**sm-pair 4조 ppt 발표 대본**

> 슬라이드 1-2

 안녕하세요. 저희는 ‘똑똑한 식사(Let’s eat out)’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선보이게 될 4조 강조 입니다. 본 발표에 앞서 질문 한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외식 좋아하시나요? 여러분은 외식을 할 때 합리적인 소비를 하고 있는지 한 번이라도 고민해 본 적이 있나요? 저희가 선보일 이 어플리케이션은 바로 이 생각에서 출발했습니다. 단순히 외식비용을 측정하는 것이 아닌 개인 맞춤형 외식 서비스를 제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저희가 삼은 모토입니다. **///** 다음으로 목차를 간략하게 훑어보겠습니다. 목차는 다음 보시는 바와 같이, 먼저 배정분야와 선택분야를 소개하고, 다음으로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소개 및 기능을 설명한 다음, 마이데이터 산업으로서의 의의를 설명하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확보 방안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메인 페이지를 소개하고, 마지막으로 개인 관점의 활용 예시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

> 슬라이드 3-10

첫 번째로 저희가 배정 받았던 분야 및 선택 분야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 저희는 ‘금융’이라는 분야를 배정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저희 조원들 모두 낯설다고 느껴 주제를 정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주어진 자료 내에서 소비 관리 어플에 중점을 두었고, 이에 따라 데이터 소장처 및 유형을 세분화하였습니다. // // 데이터 소장처는 크게 멤버십 어플, A 은행사, 소비 관리 어플 3가지로 구분하였고, 유형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3초 쉼) **///**

 저희는 ‘금융’과 접목시킬 분야로 ‘외식’을 선택했습니다. // // 데이터 소장처 및 유형은 크게 지도 어플, 음식점 사이트, 배달 어플 3가지로 구분하였고, 유형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3초 쉼) **///**

 저희가 왜 ‘금융’과 ‘외식’을 융합했는지 다소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 저희는 처음 배정 받았던 ‘금융’이라는 분야에 접목시킬 다른 분야를 선택할 때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 앞서 저희는 소비 관리 어플에 중점을 두어 생각한 결과, 이에 따른 과소비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 // 저희 조원들 대다수는 외식비에 지출을 많이 하고 있었고, 자료 조사를 통해 실제로도 사람들이 외식비 지출에 많은 부담을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이유로 ‘외식’이라는 분야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

 두 번째로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소개 및 서비스 기능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 //저희 어플리케이션 이름은 ‘똑똑한 식사(Let’s eat out)입니다. // 어플리케이션의 기획 의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소비자들은 외식비 지출에 많은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가 지출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외식비용을 줄여 합리적인 소비를 돕고자 이 어플리케이션을 기획했습니다. **///** 다음으로 어플리케이션 기능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어플리케이션은 주체적 지출 분류, 소비 패턴 분석, 위치 반영 메뉴 추천, 취향 반영 메뉴 추천으로 총 4단계에 걸친 시스템에 의해 작동됩니다. // 먼저 주체적 지출 분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비자가 외식 후 스마트 영수증을 받으면 이와 연동된 ‘똑똑한 식사(Let’s eat out)’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첫 달에만 소비자가 지출 필요성을 직접 분류하며 이후에는 자동적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 기능은 금융 분야의 스마트 영수증과 A 은행사, 그리고 외식 분야의 메뉴을 활용합니다. // 다음으로 소비 패턴 분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에 소비 내역이 저장되면 자체적으로 소비 패턴을 분석하게 됩니다. 그 분석에 따라 다음 달 맞춤 레포트가 생성되어 소비자에게 제공됩니다. 이 분야는 금융 분야의 한달 지출액, 한달 수입액, 소비 카테고리, 그리고 외식 분야의 메뉴를 활용합니다.

**///** // 세 번째로 위치 반영 메뉴 추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GPS 로 현 위치를 파악하고 그날 예산을 책정하면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적합한 메뉴를 추천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이 기능은 금융 분야의 멤버십 어플, 그리고 외식 분야의 배달 어플, 음식점 사이트, 지도 어플을 활용합니다. // 마지막으로 취향 반영 메뉴 추천은 어플리케이션에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소비자의 취향을 파악하여 그 날의 예산에 맞게 적합한 메뉴가 추천되도록 작동됩니다. 이 기능은 금융 분야의 멤버십 어플, 그리고 외식 분야의 배달 어플, 음식점 사이트, 지도 어플을 활용합니다.  **///**

> 슬라이드 11-14

 마이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이 어플리케이션, 과연 산업적으로 어떤 의의가 있을까요? **///** // 첫 번째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은행 및 카드 정보를 모두 제공하지 않고 스마트 영수증과 같은 소비 관리 메뉴를 추천하는 데에 필요한 일부 정보만 제공함으로써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죠.

// 두 번째는 예산 관리가 보다 편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는 정보를 단일화하여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으므로 예산 관리 측면에 있어서 편리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소비 관리 어플과 멤버십 어플에서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플에 활용함으로 인해 금융 분야와 외식 분야의 정보를 융합하여 필요한 곳에 이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마이데이터 산업에서 중시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나누어보았습니다.  **///** // 저희가 생각한 방안 중 첫 번째는 // 구독 서비스를 채택하여 구독 취소를 할 경우 모든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것입니다. // 뿐만 아니라 장기간 어플을 사용하지 않는 소비자의 경우, 그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것 역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소비자가 어플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하도록 하여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다음 발표자 분이 어플리케이션의 메인페이지와 개인 관점의 활용 예시를 설명해주시겠습니다.

**> 슬라이드 15-18**

 다음으로 어플리케이션 메인 페이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

‘똑똑한 식사’ 어플리케이션의 메인 홈 화면에서는 현 위치를 자동으로 띄워주며 현 위치가 아닌 다른 위치의 음식점 정보를 알고 싶을 시에는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밑에 오늘의 예산에 맞는 추천 메뉴가 크게 보여지며 예산에 맞는 다른 메뉴들도 슬라이드 하면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밑에 이번 달의 남은 예산이 보여지게 됩니다. 바로 밑에 맞춤 레포트가 간결하게 보여지며, 과소비는 빨간색, 합리적인 소비는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한눈에 비율을 볼 수 있습니다. 더 자세히 보기 버튼을 누르면 맞춤 레포트 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가장 하단에 있는 탭에는 마이데이터 버튼, 홈 버튼, 저장하기 버튼이 있는데 마이데이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연동관리 화면으로 창이 넘어가게 됩니다. 홈 버튼을 누르게 되면 기본 창인 현재 메인 홈 화면으로 돌아오게 되며, 저장하기 버튼을 누르면 자신이 저장한 음식점 리스트와 메뉴들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1분 20초**

만약 메인 홈 화면에 띄워진 추천 메뉴가 맘에 들지 않는다면 예산에 맞는 다른 메뉴들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두번째 검색 화면에서는 카테고리가 한식, 분식, 치킨, 디저트, 야식 등 음식이 여러 카테고리로 분류가 됩니다. 먹고 싶은 카테고리를 누르면 음식이 추천 순으로 뜨게 됩니다. 이때 추천 기준은 현 예산에 맞는 가격대이며, 좋아요 내역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이를 통해 보다 예산에 맞으며 사용자가 더 좋아할만한 다양한 음식들을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2분 10**초

 아까 말씀드린 홈 화면에 있는 간단히 표로 그려진 맞춤 레포트에서 더 자세히 보기 버튼을 누르면 이동하게 되는 맞춤 레포트 창에는 이번 달 수입과 지출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달력이 보여지며 하루에 얼마를 지출했는지, 또는 얼마의 수입이 들어왔는지를 대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밑에는 식비로 인한 소비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들었던 음식에는 좋아요 표시를 할 수 있으며, 과소비인지 아닌지를 사용자가 판단하여 분류할 수 있게끔 과소비 체크박스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2분 55초**

 마지막으로 연동 관리 화면입니다. 연동 관리 화면에서는 ‘똑똑한 식사’ 어플과 연결되어 있는 은행이나 소비관리어플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각각 해지하기 버튼을 눌러 손쉽게 정보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되며, 소비자가 어플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소비자가 ‘똑똑한 식사’ 어플을 장기간 미사용하게 되면 어플에 사용되거나 축적된 소비자의 모든 개인정보가 파기됩니다. **///**

**3분 30초**

 다음으로 저희가 개인 관점의 활용 예시 두 가지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우선, 가상 이용자 김눈송의 입장이 되어 이 어플리케이션을 실제로 사용해보겠습니다.**//** 숙명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김눈송은 한 달 용돈 30만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주 3일마다 하교 후 학원에 가기 전에 저녁을 사먹어야 하는 입장입니다. 정해진 용돈으로 최고의 가성비를 내며 식사할 수 있는 ‘똑똑한 식사’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하교 후, 김눈송은 ‘똑똑한 식사’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합니다. 어플리케이션의 메인 화면에서는 현 위치 중심, 즉 숙명 고등학교 주변 음식점이 추천 내역에 뜨게 됩니다. 어플을 키자, 현재 남아 있는 용돈과 오늘의 추천메뉴, 그리고 나의 과소비내역, 합리적인 소비의 비율 그래프가 보여지게 됩니다. 오늘의 추천메뉴를 슬라이드 하며 넘기다 보니 먹고 싶은 족발의 사진이 보입니다. 김눈송은 여유로운 예산에 맞춰 어플이 추천해 준 음식점으로 가서 족발을 먹고, 오늘의 저녁식사를 마칩니다. 저녁식사가 매우 흡족했던 김눈송은 다음에도 또 이 족발를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맞춤 레포트 화면에서 좋아요 버튼을 눌러 방문한 음식점을 저장합니다. **///**

**5분**

 다음으로**//** 실제 이용자 권정의 입장이 되어 ‘똑똑한 식사’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해보겠습니다. 숙명여자대학교에서 아침수업을 들은 권정은 코로나 때문에 집에 가서 점심식사를 하려 합니다. 현재 날짜가 1월 말이라 남은 용돈이 7만원밖에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앞으로 10일간의 저녁식사비용을 7만원 안에서 해결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학교 수업을 마친 후 ‘똑똑한 식사’를 실행하니, 위치가 숙명여대로 뜹니다. 하지만 자신의 집에서 점심을 해결해야 하므로 위치 설정을 집 주변인**//** ‘의정부역’으로 해줍니다. 메인화면에 추천메뉴들이 여러 개 뜨지만 권정은 떡볶이가 먹고 싶기에 추천 메뉴들이 맘에 들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메뉴 배너를 눌러**//** 분식 카테고리를 누릅니다. 밑에 다양한 종류의 떡볶이가 뜨게 되는데 그 중 떡볶이 가격이 가장 저렴하고 배달비도 따로 필요 없는 눈송 분식집을 찾은 권정은 눈송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시켜 점심식사를 하게 됩니다. 식사를 하는 도중 용돈이 얼마 남지 않아 부족하기에 지출을 아껴야겠다는 생각이 든 권정은 메인 화면에서 맞춤 레포트 더 자세히 보기 버튼을 눌러**//** 과소비라고 생각하는 지출의 체크박스를 누르고,**//** 그에 맞춰 다시 맞춤 레포트가 생성됩니다. 그리고 메인화면에서 마이 데이터를 눌렀을 때**//** 나오는 연동 관리 탭에서 이제 거의 사용하지 않아 잔액이 남지 않은 우리은행 연동을 해지하게 됩니다. **///**

**6분 45초**

> 슬라이드 19

지금까지 금융 분야와 외식 분야를 결합한 ‘똑똑한 식사’ 어플리케이션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은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7분**

이상으로 4조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분 10초**